

## [목회실에서]

### Thanks - Giving!

김한성 목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국에서의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와싱톤한인교회가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과 사랑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덕수궁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며 돌담길을 걸을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 길이 그리도 넓어 보였는데, 그때는 담벽 옆에 있는 은행나무가 저리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어린 몸엔 길은 넓어 보였고, 40여년 전 보다 나무는 훌쩍 커버린 것입니다. 세월의 덧없음, 동시에 긴 시간 동안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 했습니다. 여러번 갈래길 앞에서 거듭 재 헌신하게 하셔서 목회의 길을 걷게 해주신 은혜, 새벽 이슬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은혜. 시간을 되감고, 또 고개를 파노라로마로 펼쳐보아도 모든 시공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Dear beloved church members, thanks to your prayers, I safely returned home after finishing everything I set out to do in Korea in God's grace. Visiting several churches in Korea made me realize again that KUMCGW is a healthy, beautiful faith community. At the same time, I was deeply moved by Korean churches' passion for prayers and dedication of love. Old memories came alive while I was walking around the wall of Duck Soo Palace to visit a church next to the palace. When I was young, the pathway seemed so wide, and gingko trees next to the wall didn't seem so high... The pathway must have been looked so wide because I was too little, but the trees must have grown tall for the past 40 years. I felt the frailty of time, but at the same time I was very thankful for the grace of God who has protected me and guided me for all these years. I am grateful for His grace in leading me to keep dedicated to His ministry at each fork of all the ups and downs and allowing me to serve the Lord's church as beautiful as morning dew. If I look back and stretch all the memories, everything is filled with love and grace of the Lord.

양화진 묘역,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 조선을 사랑했던 푸른 눈의 선교사들의 일대기 앞에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Thanks-Giving,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송과 입술의 고백, 온 몸을 다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오. 우리들의 가슴과 손을 넓게 벌려서 소외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맘껏 나누는 감사절 되시길 바랍니다.

I was deeply touched by God's love at YangHwa Jin cemetery where foreign missionaries who dedicated their youth and passion for their love for Chosun were buried. Thankfulness is to give. Let's lift thankfulness and honor up to God who has led us here with the most beautiful praise, confession and all our heart and soul. I pray that our Thanksgiving be the season of extending God's love even to those neighbors who are lonely and marginalized with open heart and wide open arms.